

연중 제6주일(2월 16일) 행복선언 (루카 6,17,20-26)



호숫가에 앉아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한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트는 <호숫가에 앉아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그렸다. 유다인을 상대로 복음서를 쓴 마태오 복음사가는 산 위에서 참 행복선언을 하셨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서를 쓴 루카 복음사가는 평지에서 참 행복과 불행을 선언하셨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어 군중을 향해 참 행복과 불행을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바위에 앉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선언하시고 열두 사도를 뽑으셨다고 상상했다. 제자들을 제외하고 얼굴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여인들과 아이뿐이다. 그 당시 여인과 아이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루카 복음사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작가 제임스 티소트 | 1886-94sus, 수채화, 16x19.4cm, 브루클린 미술관, 미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번 “찬양하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6장 17절,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17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20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뒤흔다.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24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25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부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가 불러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고 있어야만 행복하다 여깁니까? (루카 6,20-21 참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웃으십니까? (루카 6,20-21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나자렛 예수’라는 책에서 “행복선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그리신다. 행복선언은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되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행복선언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미움받고 모욕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하느님 나라 때문에 모욕을 당함으로써, 결국엔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행복에 들어가신 분, 그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복선언을 통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쪽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내 눈을 반대로 한번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6장 20-21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부르심 받은 젊은이들을 위하여-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 안에서 ▶ 교황님 2월 기도 지향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본당 내 성소 생활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없다면 부르시도록) 미사 중 기도하기
- ② 본당 성소후원회를 위해 소공동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논의하기

내 삶 속에서

- ① 부름 받은 이들이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성체조배 중 기도하기
- ② 사제, 수도자들을 위하여 일상 속 화살기도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번 “찬양하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